

Objects IN Oscillation

진동하는 사물들

9 June – 19 July 2026

국제갤러리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K1과 K2에서 사진 기획전 <진동하는 사물들(Objects in Oscillation)>을 개최한다. 동시대의 한국 사진작가 9인의 정물 사진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사진 매체 고유의 표현을 탐색하는 동시에 어떻게 사물과 마주하고 관계 맺을 것인지를 질문한다. 디지털 이미지 기술이 낱이 진화하고 빠르게 소비되는 현대에, 참여작가들은 과도한 디지털 후보정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및 교정을 경유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눈과 감각, 그리고 카메라의 광학적 기술만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전시는 사진작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사진이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구본창 작가의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동료 사진가들을 한자리에 초대하는 한편, 자신의 정물 작업 또한 함께 선보인다. K1 뒤편 전시장에 자리한 <오브제> 연작은 새틴 천 안감의 빈 상자들을 모아 촬영한 작품이다. 기존의 내용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음각으로 간직한 이 상자들은 존재와 부재, 주연과 조연의 관계를 되묻는다. 간과되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은 <컬렉션> 연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우연히 마주한 사물들을 수집하고 응시하며, 이를 단순한 배경과 조명 아래에서 촬영함으로써 각각의 사물이 스스로 고유한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같은 공간에 자리한 정희승 작가에게 사진이란 우연한 순간과 이를 필연적 이미지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시도 사이에서의 망설임이다. 그는 신작 <병렬투영>(2026)에서 19세기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의 시집 『주사위 던지기』(1897)를 사진적으로 번역하며 사진 매체의 존재론에 대한 사유를 풀어낸다. 우연이라는 절대적 심연에 대한 수학적 탐구를 시적 언어에서 이미지로 변환하며, 정희승은 시의 다층적 상징성과 불가해성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는 오브제들을 소재로 삼는다. 나아가 원본 텍스트의 개념과 사진 이미지를 어느 한 소실점에서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나아가는 병렬의 관계에 놓기 위해, 소실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투시도법인 '병렬 투영(parallel projection)*'의 구도를 취하고, '아이소메트릭(isometric)**' 그리드 위에 사물을 배치한다. 우연과 필연 사이를 '진동'하는 그의 사진적 성좌는 사진 매체의 고유성과 형이상학적 사유를 정교하게 연결한다.

한편, 사진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존재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도 선보인다. K1 앞쪽 전시장에 자리한 조성연 작가의 <사라지지 않고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연작은 도시의 주변부에서 채집한 콘크리트 조각, 철근, 전선, 기계 부품, 식물의 잔해 등을 재조합해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포착한다. 이 장면들은 계산된 연출의 결과라기보다 작가가 사물과 함께한 시간과 인연이 빚어낸 산물에 가깝다. 그 일시적인 균형 속에서, 사물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생명력을 발현한다.

K2 1층으로 이어지는 전시에서 김수강 작가는 일상의 모퉁이에 놓인 사물들에 시선을 돌린다. 작가는 돌, 병, 종이 가방, 침대 등 주변에 무심히 존재하는 대상들을 명상하듯 오래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깃든 아우라를 담아낸다. 특히 작가는 작업에 고유의 질감을 부여하는 검프린트(gum print)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종이에 물감을 넣은 용액을 바르고 빛을 쬐고 물 속에서 현상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색조를 구현하는 정교한 수작업이다. 이를 통해 회화적인 물성을 입은 그의 사진은 가장 적당한 무게로 사물의 비가시적인 내면을 비춘다.

김수강이 고전적인 유제 기법으로 사진 매체의 가능성을 다룬다면, 김경태 작가는 사진을 중첩하고 합성하며 렌즈 초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작가는 피사체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각 사진에서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맞는 부분들만 합성하는 '포커스 스택킹(focus stack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화면의 모든 지점에 고르게 초점이 맞는 선명한 이미지가 탄생한다. 이렇게 완성된 작업 <Brass Hex Nut>(2016)은 너트 표면의 질감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전시장에서는 세 점을 나란히 배치하여 시선과 초점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박찬우 작가 역시 중첩의 기법을 활용하지만, 그의 목적은 경험이 축적되며 남는 기억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조선시대 '책거리' 형식을 차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책거리가 당대의 지식과 취향, 가치관을 진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물건들을 그려 넣은 회화의 한 장르였다면, 박찬우는 '좋은'의 기준을 상품성이나 물질 자체의 특성이 아닌 경험의 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책장에 사용 흔적이 묻은 일상 용품들을 병치한다. 이 사물들은 다시점(多視點) 방식으로 중첩 촬영되어 하나의 고정된 위계나 관점을 거부한다. 과거의 형식을 빌려 현재의 가치 체계를 질문하는 그의 작업은 경험과 기억이 덧대어지며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함께 자리한 구성연 작가의 <설탕> 연작은 설탕으로 정교하게 조각한 보물과 장식을 담아낸다. 작가는 가변적인 소재로 오브제를 제작하고 이를 정물화의 구도로 배치해 촬영하는데, 사진 매체는 이 모사물을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간극을 드러내며 보는 이의 판단을 유예시킨다. 달콤하고 반짝이지만 이내 사라질 운명을 지닌 설탕 오브제 사진은 실제와 가상, 영원과 순간, 이상과 허상의 경계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명한다.

한편, K2의 2층에서는 '사라짐'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된다. 정정호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노무자였던 할아버지의 삶을 추적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작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와 접근이 제한된 장소들에 맞닥뜨린 작가는 사라진 역사를 외부의 정보로 메우기보다 현재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작가는 탄피, 철사, 끈, 아카이브 문서, 아버지의 군대 사진 등 수집한 오브제들을 재구성해 촬영함으로써 전쟁 속 잊힌 개인의 작은 역사를 복원한다. 조사, 수집, 조합을 거치는 긴 작업 과정은 지워져 버린 존재들과 연결되어 이들을 사유하는 시간이며, 최종 결과물인 사진은 그 모든 행위의 증표로 남는다.

조선희 작가의 사진은 부재와 소멸을 탐구한다. <Black Imago>(2024–2025) 연작은 시들어가는 꽃의 외피에 화상의 재를 연상시키는 검은 안료를 입혀 촬영한 작업이다. 검게 뒤덮인 꽃은 생명력과 기능이 휘발된 채 무기질의 고요한 질감으로 응축되며, 사진은 이 마지막 모습을 물질적 기록으로 붙든다. <Planet>(2024–2025) 연작은 부패하며 형태를 잃어가는 과일들을 작은 행성처럼 포착한 작업이다. 작가는 생의 기능을 다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물질의 상태를 조명하며,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미학적 상태로 전이되는 순간으로 기록한다.

이렇듯 <진동하는 사물들>의 참여작가들은 정지된 듯 고요하지만 저마다의 내밀한 울림으로 맥동하는 사물의 시적 진향을 포착한다. 관찰과 응시, 어루만짐의 시간이 응축된 이들의 사진 속에서 사물들이 간직해온 고유의 시간이 다시금 펼쳐진다.

*병렬 투영(parallel projection): 3차원의 대상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할 때, 시선(투영선)을 한 점으로 모으지 않고 평행하게 연장하여 그리는 투시 기법.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 멀리 있어도 작아지지 않고 동일한 크기와 비례를 유지한다.

**아이소메트릭(isometric): 병렬 투영 기법의 한 종류로, 공간을 구성하는 x, y, z 세 축이 각각 120도의 동일한 각도를 이루도록 설계된 기하학적 격자.

작가 소개

구본창(b. 1953)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Fachhochschule Hamburg)에서 사진 디자인 전공으로 디플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25년 사진작가 최초로 삼성호암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 <구본창: 사물의 초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 <구본창의 항해>(서울시립미술관, 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2021),

한미사진미술관(현 뮤지엄한미)(2012)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런던 영국박물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희승(b. 1974)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후,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LCC)에서 사진학과 학사 및 석사를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후원작가로 선정,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멀리서 너무 가깝게》(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2025), 《부적절한 은유들》(아트선재센터, 2013)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민미술관(2021), 광주비엔날레(2018)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조성연(b. 1971)은 상명대학교에서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진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우연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스페이스 소, 2021), 《기시감》(담 갤러리, 1999) 등이 있다. 작가는 대구문화예술회관(2024), 인천아트플랫폼(2022), 우양미술관(2021),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2006)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닷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수강(b. 1970)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사진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길꽃》(갤러리 플래닛, 2024), 《모든 날의 숨》(스페이스22, 2021), 《In My Hand》(성곡미술관, 2003)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2016), 휴스턴 미술관(2009) 등에서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휴스턴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경태(b. 1983)는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예술대학교(ECAL) 아트 디렉션 석사를 수학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유한하고 끝이 없는 힘》(하이트컬렉션, 2024), 《Bumping Surfaces》(두산갤러리, 2021), 《표면으로 낙하하기》(휘슬, 2019)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2023), 송은(2021), 일민미술관(2021)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2020년에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박찬우(b. 1963)는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했다. 《Stone》(중정갤러리, 2013)을 시작으로 《September 24, 2024》(중정갤러리, 2024), 《Frame》(중정갤러리, 2021) 등 주요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6 아트경기 스타트업》(경기문화재단, 2016), 《행복을 만나다》(갤러리 모이소, 201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가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독일 뮤지엄 아트. 플러스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연(b. 1970)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수학한 후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모래가 돌이 되는 시간》(광주신세계갤러리, 2025), 《사라지지 않으니까》(상업화랑, 2024), 《사탕》(트렁크갤러리, 2009) 등이 있으며, 대구사진비엔날레(2025), 광주시립미술관(2019), 국립현대미술관(2014) 등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정정호(b. 1981)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신 터》(보안여관, 2025), 《믿음의 지형학》(금천예술공장, 2024) 등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컴백홈》(서울시립 사진미술관, 2026), 《공존》(미텔라인 미술관, 코블란츠, 독일, 2024),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2), 《보존과학자 C의 하루》(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0) 등이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희(b. 1971)는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16년간 재직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Frozen Gaze》(뮤지엄한미, 2025), 《姬: 나의 우주다》(뉴스프링프로젝트, 2022), 《화가의 비망록》(박노수미술관, 2021) 등이 있으며 일민미술관(2022), 국립현대미술관(2016), 아트선재센터(2007) 등 국내 주요 기관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뮤지엄한미,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하퍼스 바자 패션포토그래퍼상, 세계패션그룹 패션저널리스트상 사진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Objects IN Oscillation

진동하는 사물들

9 June–19 July 2026

Kukje Gallery is pleased to present *Objects in Oscillation*, a group exhibition of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ers, in the gallery's K1 and K2 spaces from June 9 through July 19, 2026. Focusing on the genre of still life, the exhibition brings together nine artists, whose works interrogate the photographic medium's intrinsic modes of expression while questioning how one encounters and relates to objects. In an era marked by relentless updates and rapid consumption of digital imagery, the participating artists create works without relying on excessive digital post-production or AI-driven image modification. Instead, they produce images grounded solely in the immediacy of their own vision, sensory perception, and the camera's optical technology.

Curated by Koo Bohncchang, the renowned artist, curator, and educator who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integrating photography into the fabric of Korean contemporary art, the exhibition convenes a cohort of photographers, including Koo himself, whose still lifes are also on view. Presented in the rear gallery of K1, Koo's *Object* series documents a collection of empty boxes lined with satin material. These boxes retain traces of their former contents as negative imprints, and these traces call in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center and periphery. This affectionate engagement with quiet presences is also manifest throughout the *Collections* series. Gathering and attending closely to objects encountered by chance, Koo photographs his subjects against minimal backdrops and subdued lighting, creating a setting in which each object is allowed its own story.

Featured in the same room are works by Chung Heeseung. Chung approaches photography as a state of hesitation, a suspension between life's fleeting, accidental moments and the artistic attempt to transmute them into an inevitable image. In her new series *Parallel Projection* (2026), the artist offers a photographic translation of Stéphane Mallarmé's poem *A Throw of the Dice* (1897), unpacking reflections on the ontology of the photographic medium. Translating into visual imagery the poem's mathematical exploration of chance and its abyss, Chung adopts subjects that evoke symbolic motifs and summon the unknown. In order to position the photographic image and the original text's concept in parallel—one that progresses side by side without ever intersecting at a vanishing point—the artist employs “parallel projection,”* a technique that eliminates vanishing points entirely, utilizing a perspectival system known as an isometric grid.** Oscillating between chance and necessity, Chung's constellation of distinctive photographs bridges the specificity of the medium with a profound metaphysical point of view.

Other works in the exhibition cultivate an intimate dialogue with the minor and seemingly trivial elements of everyday life, allowing them to emerge in an entirely different light. Installed in the front gallery of K1, Jo Seongyeon's series *Become a part of something* and *A Complete Coincidence* combine fragments gathered from urban peripheries—concrete shards, rebar, wires, mechanical components, and plant debris—capturing the novel possibilities latent within them. Rather than being the outcome of calculated staging, these scenes are closer to the product of time and affinity shared between the artist and the objects. Within this ephemeral equilibrium, the objects manifest an innate potentiality and vitality.

On the first floor of K2, the exhibition showcases Kim Sookang's attentive engagement with objects inhabiting the quiet margins of everyday life. Through prolonged and meditative observation of

stones, bottles, paper bags, and other mundane objects drawn from the artist's immediate surroundings, the works reveal the subtle aura inherent in them. Crucial to this practice is a process known as gum printing, which imbues the images with a distinctive tactile texture. This intricate, manual process involves coating the paper with a pigmented solution, exposing it to light, and developing it in water—a cycle repeated multiple times to build rich tonal depths. Defined by this unique painterly materiality, these photographs illuminate the invisible interiority of objects with precise, calibrated weight.

While Kim Sookang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the photographic medium through classical techniques, Kim Kyoungtae creates images that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optical lenses by layering and compositing photographs. Incrementally advancing the camera toward the subject, the artist captures hundreds of frames and combines them through a process called “focus stacking.” This is a technique that merges the sharpest focal points of each shot to generate a clear image where every coordinate of the visual plane remains in perfect focus. Showcasing a representative use of this technique, the exhibited *Brass Hex Nut* (2016) series maximizes the texture of the familiar subject's surface, while its triptych-like arrangement of three sequential frames visualizes the physical shift of the viewer's gaze and focal point.

Park Chanoo also employs a process of layering to reveal lingering memories and the residues of accumulated experience.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works structured after *Chaekgeori*, a genre of Joseon Dynasty painting in which the “finest” objects were placed on shelves to display one's knowledge, taste, and values. While traditional *Chaekgeori* functioned as a pictorial framing of prized objects, Park reconsiders the notion of value not through commercial or material qualities, but through cumulative temporalities, as he juxtaposes everyday items in a similar process of display. Captured through a multi-perspective layering method, these objects resist any fixed hierarchy or singular viewpoint. By questioning contemporary systems of value through historical forms, his works invite reflection on how meaning emerges through the sedimentation of memory and experience.

Displayed alongside these works, Koo Seongyoun's *sugar* series presents treasures and ornaments finely sculpted from sugar. The artist creates objects from variable materials and arranges them in still life compositions before photographing them. Her images transform these crafted objects into something deceptively real while simultaneously exposing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mitation, leading the viewer to suspend judgment. At once sweet, glittering, and transient, these photographs of sugar objects illuminate human desire at the boundaries between the real and the staged, permanence and transience, and the ideal and the illusory.

Meditation on this idea of “disappearance” continues on the upper floor of K2. Jung Junggho traces and documents the life of his grandfather, who was mobilized as a wartime laborer. In the course of his research, the artist encounters fragmented records and inaccessible sites; rather than filling the gaps of erased history with external information, he reinterprets them through his own contemporary perspective. He arranges and photographs collected objects—including shell casings, wire, rope, archival documents, and military photographs of his father—to reconstruct the lost history of an individual caught within the Korean War. The prolonged process of researching, collecting, and assembling becomes a means of connecting with forgotten lives, leaving the photograph as evidence of the entire process.

Zo Sunhi's photographs explore absence and decay. *Black Imago* (2024–2025) is a photographic series in which withered flowers are coated in black pigment reminiscent of crematory ash. Covered entirely in black, the flowers lose their vitality and function, condensing into inorganic textures, while photography preserves this final state as a material record. In the *Planet* (2024–2025) series, decaying fruits are captured in their dissolution in withered forms that echo small planets.

Picturing the state of matter after life has exhausted its function, the artist records death not as an ending, but as a transformative moment that gives birth to another aesthetic state.

The diverse still lifes presented in *Objects in Oscillation* appear silent and immobile, yet beneath the camera's gaze each pulse with its own rhythm and poetry. These photographs crystallize prolonged moments of attentive observation, in which the artists' care and keen engagement reawaken the objects, allowing their time to unfold once more.

*Parallel projection: a perspective technique used to represent three-dimensional objects on a two-dimensional plane by extending projection lines in parallel rather than converging them at a single point. Because there is no vanishing point, objects retain the same size and proportion regardless of distance.

**Isometric: a type of parallel projection in which the x, y, and z axes that structure space are arranged at equal 120-degree angles, forming a geometric grid.

About the Artist

Koo Bohnchang (b.1953)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before earning a Diploma in Photographic Design from Fachhochschule Hamburg in Germany. In 2025, he became the first photographer to receive the Samsung Ho-Am Prize, and he was also honored with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t the Korea National Culture and Arts Awards.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Koo Bohnchang: The Look of Things*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2024) and *Koo Bohnchang's Voyages* (Seoul Museum of Art, 2023).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2021) and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2012). His work is held in prestigious permanent collections worldwide, including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ung Heeseung (b.1974) received a BFA in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and both a BA and MA in Photography from the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She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ur finalists for the Korea Artist Prize 2020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has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at the SONGEUN Art Award.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Faraway, so close* (Goeun | Gibson Museum of Photography, 2025) and *Inadequate Metaphors* (Art Sonje Center, 2013).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Ilmin Museum of Art (2021) and the Gwangju Biennale (2018). Her work is held in prominent collection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Seoul Museum of Art.

Jo Seongyeon (b.1971) received a BFA and an MFA in Photography from Sangmyung University.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 Complete Coincidence* (SPACE SO, 2021) and *KISIKAM* (Gallery Dam, 1999).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the Daegu Arts Center (2024), Incheon Art Platform (2022), Wooyang Art Museum (2021), and the Nam-Seoul Museum of Art (2006). Her work is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s of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the Datz Museum of Art.

Kim Sookang (b.1970) received a BFA in Pain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FA in Photography from the Pratt Institute in New York.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Wildflowers* (Gallery Planet, 2024), *Breath of Every Day* (SPACE22, 2021), and *In My Hand* (Sungkok Art Museum, 2003). She has participated in prominent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6)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9). Her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and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Kim Kyoungtae (b.1983) received a BFA in Visual Design from Chung-Ang University and an MA in Art Direction from the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ECAL) in Switzerland.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 Finite But Unbounded Force* (HITE Collection, 2024), *Bumping Surfaces* (DOOSAN Gallery, 2021), and *Dropping to the Surface* (Whistle, 2019). 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23), SONGEUN (2021), and Ilmin Museum of Art (2021). The artist was the recipient of the DOOSAN Yonkang Art Award in 2020, and his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Park Chanoo (b.1963)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tarting with *Stone* (Joong Jung Gallery, 2013),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September 24, 2024* (Joong Jung Gallery, 2024) and *Frame* (Joong Jung Gallery, 2021). 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2016 Art Gyeonggi Start U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6) and *Encountering Happiness* (Gallery Moiso, 2014). His work is represented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Gwangju Museum of Art, and Museum Art Plus in Germany.

Koo Seongyoun (b.1970) studied Indian Philosophy at Dongguk University before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time it takes for sand to become rocks* (Gwangju Shinsegae Gallery, 2025), *Un-vanishing* (Sahng-up Gallery, 2024), and *Candy* (Trunk Gallery, 2009). She has participated in prominent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Daegu Photo Biennale (2025), the Gwangju Museum of Art (2019),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4). The artist was the recipient of the Grand Prize at the Gwangju Shinsegae Art Prize, and her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the Gyeonggi Museum of Art.

Jung Junggho (b.1981) studied Journalism as an undergraduate and received an MFA in Photography.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Sacred Site* (ARTSPACE BOAN, 2025) and *Topography of Beliefs* (Seoul Art Space Geumcheon, 2024).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Come Back Home* (Photography Seoul Museum of Art, 2026), *Coexist* (Mittelrhein Museum Koblenz Germany, 2024), *The Printed World* (Buk-Seoul Museum of Art, 2022), and *Conservator C's Da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2020). His work is held in prominent collec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Seoul Museum of Art, and the Cheongju Museum of Art.

Zo Sunhi (b.1971)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degree in Clothing and Textiles and served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nd Motion Picture at Kyungil University for 16 years.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Frozen Gaze* (Museum Hanmi, 2025), *婁: Cosmos Mea* (New Spring Project, 2022), and *The Painter's Memorandum* (Pak No-soo Art Museum, 2021). She has participated in prominent group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Ilmin Museum of Art (2022),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6), and Art Sonje Center (2007). Her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Museum Hanmi and the Amorepacific Museum of Art. The artist was the recipient of the Harper's BAZAAR Fashion Photographer Award and the Fashion Journalist Award (Photography category) from the Fashion Group Korea Association.